산업통상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5. 12. 1.(월) 09:30 <12.1.(월) 석간> 배포 2025. 11. 28.(금)

올해 10대 제조업 투자 계획 122조원, 차질 없이 이행중

「민관합동 산업투자전략회의」 개최

- 올해 10대 제조업 국내 설비투자 계획은 연초 119조원보다 3조원 상향
- 올해 3분기 기준 투자 이행률도 전년 동기와 동일한 68%로 양호
- 국내투자 촉진을 위해 규제, 인프라, 금융 등 밀착 지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2.1일 반도체, 자동차 등 10대 제조업 대표 기업과 함께 「민관합동 산업투자전략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날 회의는 지난 11.16일 대통령 주재 「한-미 관세협상 후속 민관합동회의」 후속으로서, 올해 10대 제조업 투자 계획과 3분기까지의 투자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국내투자 촉진 방안을 논의하였다.

우선 올해 10대 제조업 투자 계획은 연초 조사되었던 119조원보다 3조원 상향된 122조원으로 재집계되었다. 美 관세,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영향으로 미국 등 해외로의 투자 수요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미정이었던 자동차, 배터리 등의 투자 계획이 확정되면서 증가하였다. 3분기까지 투자 이행률도 전년 동기와 같은 68%로 양호한 상황이다.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등 투자가 속도감 있게 진행 중이다.

全산업 설비투자의 약 50%를 차지하는 10대 제조업 투자는 최근 3년간 꾸준히 우상향* 중이며, 투자 계획의 약 80%를 차지하는 반도체, 자동차가 확장세를 주도하고 있다. 반도체는 견고한 글로벌 AI 수요 성장세에 발맞춰 HBM 등 첨단메모리 중심 투자가, 자동차는 전기차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

이 날 회의에 참석한 기업들은 국내투자 증가세 유지를 위해 전기차 보조금 신속 집행, 정책금융 공급 확대, 투자세액공제 직접환급제도 도입, 전기요금 인하 등을 요청하였다.

* 10대 제조업 설비투자 계획(조원): ('23년) 100 → ('24년) 110 → ('25년) 122

김정관 장관은 “요즘처럼 각국이 기업을 유치하는데 경쟁적인 시대에 국내투자는 ‘내가 대한민국의 기업’임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척도이자 바로미터이다”고 언급하며, 계획된 투자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기업 차원의 노력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규제 개선 등 국내투자 촉진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아이디어를 최대한 제안해달라고 요청하며, 기업 경영 활동에 장애되는 요인들을 해소하는데 총력을 다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담당 부서	산업정책실 산업정책과	책임자	과 장	남경모 (044-203-4210)
		담당자	사무관	홍승범 (044-203-4214)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